

<‘타타르의 멩에’와 역사·문화적 맥락에서 본 러시아어 내 몽골어·타타르어 차용어 특성>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2학년 김세빈(2021115022)

-목차-

1. 서론
2. 타타르와 몽골 : 중앙아시아의 민족 구분
3. ‘타타르의 멩에’ : 몽골의 러시아 공국 지배
 - 1) 몽골 침입 이전 루스(Русь) 공국의 분열
 - 2) 몽골의 서정(西征)
 - 3) 몽골의 특징적인 루스(Русь) 통치 체제
4. 러시아어 내 몽골 및 투르크 문화의 영향
 - 1) 통치 체제에 관한 차용어
 - 2) 문화적 맥락에서의 차용어
5. 결론

1. 서론

當初我不知這箇緣故，去年兩家奴婢肆罵時節，權妃奴婢和呂家奴婢根底說道：“爾的使長，藥殺我的妃子。”¹⁾

-『태종실록』

위의 글은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는 명 영락제의 조서 중 일부이다. 이 중 ‘呂家奴婢根底說道’는 ‘여가(呂家) 노비(奴婢)에게 말하기를,’이라고 번역되어 있다²⁾. 그러나 원래 한문의 어순대로라면 이는 ‘說道/呂家奴婢’로 표기되어야 맞다. 또 ‘根底’는 한어(漢語)로는 우리말과 같이 근거, 근본이라는 뜻인데, 이를 그대로 넣어 해석하면 문장이 부자연스러워진다. 이렇듯 일반적인 한문 어순에 부합하지 않는 문장 구조와 뜻을 알 수 없는 단어들은 원대 몽골어와 한어(漢語)가 뒤섞여 성립한 구어체인 한아언어(漢兒言語)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根底’는 한아언어에서 ‘~에게’를 의미하는 여격 조사로 사용되며, gēndǐ로 읽는다³⁾⁴⁾. 또한 몽골어는 한

1)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 9월 19일 己丑

2) 위의 책,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의 번역.

3) 몽골어의 여격 조사(~에게)에 해당하는 ‘-dur, -tur, -da, -a’ 등을 표현하기 위해 쓰였다.

4) 『漢兒言語』, <위키백과(維基百科)>, (접속일 : 2022.11.27.)

국어와 같은 알타이어계의 교착어이기에, 주어-술어-목적어 구조를 갖는 고립어인 한어(漢語)와는 달리 주어-목적어-술어 구조로 문장을 서술한다. 따라서 위의 문장을 한어(漢語)가 아닌 한아언어로서 이해하면 ‘여가노비(呂家奴婢)에게(根底) 말하기를(說道)’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兩國火者有一箇柳條，捲過來放在髻髻上，打開看裏頭，有箇紙撚緊緊的捲著，不知甚磨字，又有幾封書縫在衣領上，又那厮我根底奏道：‘本國王賞給四箇銀子。’⁵⁾

-『태조실록』

이와 같은 한아언어는 태조실록에 실린 명 태조 홍무제의 성지(聖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위 글의 ‘又那厮我根底奏道’는 조선왕조실록에 ‘또한 그놈이 제 근본을 말하되,’라고 번역되어 있다.⁶⁾ 그러나 이 문장의 ‘根底’ 역시 한어(漢語)의 ‘근본’이 아니라 한아언어의 ‘~에게’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이는 ‘또한(又) 그놈이(那厮) 나(我)에게(根底) 아뢰어 말하길(奏道)’로 번역해야 옳을 것이다.

한아언어는 이 외에 『고려사』에 등장하는 명 태조의 구두 유시(口頭 諭示)와 성지(聖旨)에도 자주 드러난다⁷⁾. 중국 남부의 장강 유역 출신인 명 태조조차 한아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보면, 백여 년에 걸친 원의 지배기 동안 한어(漢語)가 몇 가지 단어를 차용한 수준이 아니라, 몽골어의 영향으로 통사 구조 자체의 변화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 직·간접적 지배를 당하게 되었을 때 피지배 국가의 언어와 문화에 지배 국가의 언어와 문화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같은 시기 몽골의 지배를 받았던 루스(Русь)의 러시아 공국 일대에서도 중국 본토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으리라 추측해볼 수 있다. 심지어 러시아 공국들에 대한 몽골의 지배는 중국 본토보다 먼저 시작되어 훨씬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만큼⁸⁾, 러시아어도 한어(漢語)에 준하는 수준, 혹은 그보다 더 심한 정도로 몽골어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어는 형태적으로 몽골어와 유사하지도 않으며, 러시아어학에서 외국어 차용 어휘를 논할 때 타타르어(몽골어) 차용 어휘는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는다⁹⁾. 필자는 이에 의문을 가지고 러시아어 속의 타타르어 차용 어휘에 관해 직접 연구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몽골 지배기의 사회 구조나 문화와 관련지어, 어떠한 맥락에서 어휘가 차용되었는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2. 타타르와 몽골 : 중앙아시아의 민족 구분

5) 『태조실록』 권8, 태조 4년 7월 8일 己亥.

6) 위의 책,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의 번역.

7) 박영록, 「元代 直譯體公文의 構造 및 常套語 一考」, 『대동문화연구』 제86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160쪽.

8) 금(金)은 1234년, 남송(南宋)은 1279년에 몽골에 의해 멸망했다. 러시아 공국들이 몽골 바투 칸의 첫 침입을 마주한 것은 1237년이었으며, 황금 오르도에 의해 실질적 지배를 당한 기간은 1240년~1480년으로 본다.

9) 현재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러시아어학의이해’ 수업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러시아어학개론』(조남신, 박수빈)의 관련 언급은 ‘고대 러시아어가 존재하던 초기, 즉 11-14세기경에는 그것은 … 주로 타타르어(лошадь, сарай, сарафан, карандаш, богатырь 등)에서 어휘를 차용하곤 했다.’가 전부이다.

러시아에서는 몽골족에 의해 지배당한 240여 년을 ‘몽골-타타르의 멍에(Монголо-татарское иго)¹⁰⁾¹¹⁾¹²⁾’, 또는 ‘오르도의 지배(ордынское владычество)¹³⁾¹⁴⁾’라고 칭한다. 또한 당시 러시아어에 영향을 준 언어와 문화, 민족을 모두 ‘타타르(Татария)’로 칭하는 경우가 많다. 이 시기 루스 지역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 몽골족의 킵차크 칸국이다. 그렇다면 ‘타타르(Татария)’라는 명칭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타타르’는 몽골 초원 지역에 실제로 있던 부족이지만, 13세기 초반 칭기즈 칸이 이들을 공격해 전멸시킨 후에는 그 맥이 끊어졌다¹⁵⁾. 따라서 ‘몽골-타타르의 멍에’에 등장하는 ‘타타르’는 실재했던 특정 부족 ‘타타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집단을 의미한다.

‘타타르(Татария)’는 루스 일대를 침략한 몽골족이 성립하기 이전부터, 중국과 이란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중앙아시아 일대 유목 민족을 통칭하는 용어로 쓰였다. 이들이 유럽에 ‘타타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것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나, 가장 유력한 것은 몽골지역 동부에서 활동했던 ‘타타르(Tatar)’ 부족이 13세기 이전까지 강한 영향력을 지녔고, 따라서 가장 유명했기 때문에 외부 세계에서 비슷한 부류의 부족들을 일컫는 호칭으로 굳어졌다는 설이다¹⁶⁾¹⁷⁾. 중국에서는 ‘타타르’의 음역인 ‘달단(鞑靼)’을 이들 부족과 유사한 유목 집단을 통칭하는 용어로 확대하여 사용하였고, 이는 점차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갔다¹⁸⁾. 12세기까지 몽골 일대의 초원 지역에는 몽골, 타타르, 케레이트, 메르키트, 나이만 등의 부족이 잡거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사실상 투르크족과 몽골족의 구분조차 명확히 되지 않았다¹⁹⁾. 따라서 외부인의 시선에서는 이들 부족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호칭하기 어려웠으리라 짐작된다. 더욱이 루스(Русь) 일대에서는 일찍이 인접 지역에서 활동하며 자주 갈등을 빚던 투르크계 민족들을 ‘폴로베츠(половец)’로 명명하며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구분되는 새로운 유목 민족 집단을 마주했을 때 그들을 지칭할 새로운 용어인 ‘타타르’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었다²⁰⁾. 다시 말해, 루스는 동쪽 초원 지대로부터 이동해 온 몽골족의 정체를 정확히 모르는 채로, 기존에 알던 폴로베츠와는 구분하기 위해 ‘타타르’라는 용어를 도입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루스 일대에 진출했을 때 몽골군은 이미 주변의 여러 부족을 통합하고 제국을 건설해

10) 1817년 독일 학자 Christian Kruse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고, 19세기 이후 그의 저서가 러시아어로 번역되며 퍼진 인공적인 용어이다.

11) 초기에는 ‘타타르의 멍에(татарское иго)’라고만 칭했으나, 19세기 이후 ‘몽골-타타르의 멍에’로 쓰이게 되었다. (길윤미, 「러시아 역사 속 투르크 민족명에 관한 소고: ‘폴로베츠’와 ‘타타르’를 중심으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66권, 한국러시아학회, 2019, 137쪽.)

12) 최근 역사학계에서는 ‘타타르의 멍에’나 ‘몽골-타타르의 멍에’라는 표현에 민족 비하의 뉘앙스가 담겨 있다고 보아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비교적 최근까지 이 시기를 가리키는 공식적인 용어로 ‘Монголо-татарское иго’를 널리 사용했기에(러시아 원어민인 연세대학교 노여노문학 과 Ольга Храброва 교수님의 도움을 받았다.), 본고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비하의 의미 없이 이 명칭을 언급함을 미리 서술한다.

13) 2013년부터 교과서에서 쓰기 시작한 용어이다.

14) 「Монголо-татарское иго」, <위키백과(Википедия)>, (접속일 : 2022.11.27.)

15) 데이비드 O.모건, 『몽골족의 역사: 몽골초원에서 중국, 중동, 러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권용철 옮김, 모노그래프, 2012, 93쪽.

16) 위의 책, 93쪽.

17) ‘타타르’의 어원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생략한다. (길윤미의 글, 130-131쪽 참고.)

18) 길윤미의 글, 133쪽.

19) 위의 책, 93쪽.

20) 길윤미의 글, 139쪽.

가는 중이었기에, 몽골계의 여러 부족들과 투르크족 등 다양한 집단이 그 안에 속해 있었다. 따라서 타타르의 멍에(татарское иго)에 등장하는 '타타르'란 표면적으로는 몽골이나, 실상은 몽골족과 투르크족을 비롯한 킵차크 칸국의 지배층 전체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킵차크 칸국의 지배층 중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관료들은 대다수가 투르크인이었기에, 킵차크 칸국의 지배 기간 동안 루스 일대에는 몽골족 못지 않게 투르크족²¹⁾의 문화와 언어도 큰 영향을 끼쳤다.

3. '타타르의 멍에' : 몽골의 러시아 공국 지배

1) 루스 공국의 분열 상황

루스(Русь)는 9세기경 러시아 일대로 진출한 스칸디나비아 반도 출신의 바이킹 집단이자, 그들이 공국을 수립해 거주하던 지역 일대를 의미한다. 이들이 수립한 키예프 공국은 블라디미르 대공(Володимѣръ Святославичъ) 통치기를 거치며 발전했으나, 영토를 자손들에게 분할해주는 계승 원칙에 따라 점차 여러 공국들로 분열되었다²²⁾. 13세기경에는 수도인 키예프 공국 외에도 라잔 공국, 블라디미르 공국, 노브고로드 공국, 트베르 공국 등이 루스(Русь) 일대에 독립적으로 존재했다. 각 공국들은 자신의 영토를 넓히고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더욱 분열되었고, 그 분열을 극복하지 못해 결국 몽골군이 등장했을 때도 연합해서 대응하지 못했다²³⁾. 이 극심한 분열 상황은 루스 전역이 단시간에 몽골에 함락당했던 것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2) 몽골의 서정(西征)

몽골의 서정(西征)은 칭기즈 칸대부터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이 중 루스 공국들과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킨 것은 우구데이 칸 때 이루어진 2차 원정이다. 그러나 루스 공국들은 1223년, 칭기즈칸이 이끌었던 1차 원정 때 처음으로 몽골을 인식하게 되었다. 1차 원정에서 몽골군이 호라즘을 공격한 후, 호라즘 샤를 쫓던 수부타이의 군대는 러시아 남부의 킵차크 초원을 지나며 폴로베츠-루스 공국 연합군과 칼카 전투를 벌였다. 이 시기 『라브렌티 연대기(Лаврентьевская летопись)』, 『노브고로드 제 1연대기(Новгородская первая летопись)』 등의 러시아 문헌에 'татары'가 처음 등장한다²⁴⁾.

Того же лѣта явишася языци ихже никтоже добрѣ ясно не вѣсть: кто суть и отколѣ изидоша, и что языкъ ихъ, и которого племени суть, и что вѣра ихъ; и зовуть я **Татары**, а иніи глаголють Таумены, а друзіи Печенѣзи.

21) 루스 공국들이 킵차크 칸국에 예속된 이후에도 루스와 유럽의 주민들이 여전히 칸국의 지배층을 '타타르'로 칭했기 때문에, 칸국에서 활동하던 투르크인들 또한 스스로를 '타타르'로 칭하기도 하였다. (『몽골-타타르의 멍에』, <위키백과(Википедия)>, (접속일 : 2022.11.27.) 참고.)

22) 이주엽, 『몽골제국의 후예들: 티무르제국부터 러시아까지, 몽골제국 이후의 중앙유라시아사』, 책과함께, 2020, 144쪽.

23) Соловьѣв В.М., *слово о Россіи*, М.: Рус.яз.Курсы., 2003. 192 с., 40쪽.

24) 길윤미의 글, 135쪽.

그 해 여름에 어떤 민족이 출현하였으나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들의 언어는 무엇이며 어떤 부족이고 종교가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들을 타타르라 부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타우멘이라고도 하고 다른 이들은 페체네그²⁵⁾라고도 불렀다.²⁶⁾

-『라브렌티 연대기(Лаврентьевская летопись)』 「칼카 강 전투 이야기」

수부타이의 군대는 호라즘 샤를 쫓고 몽골 본토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킵차크 초원과 동유럽 일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고, 몽골은 1237년 본격적으로 이 지역을 공격하기 위해 2차 원정을 단행했다. 이들은 러시아 동부의 불가르를 함락시킨 후, 불가 강을 건너 루스의 공국들을 하나씩 점령해갔다. 당시 공국들 중 가장 강력했던 것은 블라디미르 공국이었다. 몽골군은 블라디미르 공국 남부의 라잔과 모스크바를 먼저 함락시켜, 블라디미르 공국을 봉쇄하고 러시아 북부 도시들을 위협했다. 이후 블라디미르 공국을 함락시키고 루스의 경제 중심지였던 노브고로드를 향해 진군하던 중, 봄이 되어 강의 얼음이 녹자 잠시 후퇴했다가 1240년 다시 나아가 루스의 수도 키예프를 함락시키고 유럽 방면으로 진출했다²⁷⁾. 러시아에서는 수도 키예프와 블라디미르 공국이 궤멸당하고 대표적인 경제 도시였던 노브고로드가 약화된 1240년부터 루스가 몽골의 지배를 받는 ‘타타르의 멍에’ 시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3) 몽골의 특징적인 루스(Русь) 통치 체제

1241년 우구데이 칸의 사망으로 몽골군은 유럽 원정을 중단하고 본토로 후퇴했다. 그러나 바투 칸의 세력은 킵차크 초원과 루스 공국 일대에 남아, 바투 칸을 중심으로 ‘킵차크 칸국’, 또는 ‘황금 오르도(Золотой Орды)’²⁸⁾²⁹⁾라 불리는 국가를 건설하고 그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했다.

초기에 칸국은 러시아 공국을 관리하기 위해 바스카(баскак)을 직접 파견했다. 이들은 세금을 징수하고 군사를 징집했으며, 공국 내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³⁰⁾. 그러나 러시아인들의 저항에 부딪히자 칸국은 바스카를 불러들이고, 대신 러시아인 대공이 정해진 만큼의 세금을 걷어 칸국에 바치는 간접 징수의 방식을 취했다³¹⁾. 이때 칸은 공국의 지배자인 대공들에게 그들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허가장으로서 ‘야를릭(ярлык)’을 주었다³²⁾. 트베르 공국의

25) 불가 강 하류와 우랄 산맥 일대에 거주하던 반(半) 유목민 집단이다. 9~10세기에 크림 반도의 스텝 지대와 유라시아 남부를 장악했으나, 11세기 말 비잔티움 제국-폴로베츠 연합군에 패배하며 세력이 약화되었다. (데이비드 O.모건의 책, 193쪽.)

26)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русских летописей. Т.1: Лаврентьевская и Троицкая летописи. СПб.: Типография Эдуарда Праца, 1846. с.189. (길윤미의 글, 135쪽에서 재인용.)

27) 게오르기 베르나츠키, 『몽골제국과 러시아』, 김세웅 옮김, 도서출판 선인, 2016, 81~87쪽.

28) 색상으로 방위를 표현하는 전통에 따라 나타난 명칭이다. 킵차크 칸국은 원래 서부에 위치해 ‘백의 오르도’로 불렸으나, 이후에 중앙 국가라는 의미에서 중앙 방위를 나타내는 ‘황금 오르도’로 불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황금은 몽골 제국의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이주엽의 책, 205~206쪽.)

29) 오르도(horde)란 몽골어로 장막이라는 뜻으로, 황제의 장막, 즉 황제가 지내는 곳을 의미한다. 황제 뿐 아니라 황족들이 각각 가지기도 하였다. 킵차크 칸국 시기에는 분열된 각 영토의 동의어로 쓰였다.

30) Ihor Sevcenko, The Decline of Byzantium Seen Through the Eyes of Its Intellectuals, Dumbarton Oaks Papers XV(1961), pp.167~176. (찰스 헬퍼린, 『킵차크 칸국: 중세 러시아를 강타한 몽골의 충격』, 권용철 옮김, 글항아리, 2020, 83쪽에서 재인용.)

31) 박한제 외 3인, 『유라시아 천년을 가다: 역사학자 4인의 문명 비교 탐사기』, 사계절, 2002, 113쪽..

32) 이무열, 『한 권으로 보는 러시아사 100장면』, 도서출판 가람기획, 1994, 77쪽.

반란 이후, 모스크바의 대공 이반 칼리타(Иван Калита)는 칸국에 많은 공물과 선물을 보내며 충성을 표현했고, 이를 통해 칸의 신임을 얻어 러시아 전역에 대한 조세 징수권을 얻었다³³⁾. 모스크바 공국은 다른 공국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칸국의 수도 사라이로 보내는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공국으로 부상했고, 이는 킵차크 칸국이 쇠퇴한 이후의 러시아에서 모스크바가 중심 도시의 위상을 차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한편, 14세기 이후 바스카키 담당했던 공국 감독의 역할은 다루가(даруга)라는 관직에 넘어갔다. 다루가는 각각의 공국을 할당받아 행정을 관리했으나, 공국 현지에 파견되지 않고 칸국에 거주했다는 점에서 바스카키와 차이가 있다³⁴⁾. 바스카키가 다루가로 대체되며, 칸국은 러시아 공국에 포솔(посол)이라고 불리는 사절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관료가 파견되지 않은 공국들과 킵차크 칸국 사이를 잇는 역할을 했으며, 역참을 통해 이동했다³⁵⁾.

또한 칸국은 루스 일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몽골의 전통 유목 사회에서 이용하던 만호제를 도입했다. 몽골의 투멘(tumen)³⁶⁾은 성인 남성 1만여 명이자 그들로 이루어진 병력으로 행정, 군사적 의미를 모두 가졌으나, 정주 사회인 루스에서는 완전히 같은 구조로 시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 사료³⁷⁾에는 블라디미르 대공, 모스크바 대공 등의 트미(тьмы)³⁸⁾에 대한 기록이 여러 차례 언급된다³⁹⁾.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공국을 다스렸던 이들은 15 또는 17트미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4. 러시아어 내 몽골 및 투르크 문화의 영향

이제 본격적으로, ‘몽골-타타르의 멍에(Монголо-татарское иго)’ 시기 몽골어나 투르크어로부터 러시아어로 차용되었던 어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사 결과, 어휘들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었다. 먼저 킵차크 칸국 통치 체제의 특성과 관련하여 차용된 어휘들이 있다. 킵차크 칸국이 루스 일대를 관리하기 위해 채택했던 제도나 공국들에 부과했던 여러 세금에 관한 어휘들이 주를 이룬다. 두 번째는 킵차크 칸국의 지배층을 이루던 몽골족과 투르크족의 문화와 관련하여 차용된 어휘들이다. 몽골어 차용어 중에는 말을 비롯한 동물들이나 자연 현상을 지칭하는 어휘가 많고, 투르크어 차용어 중에는 금융, 경제와 관련된 어휘가 다수 있다. 또 당시에는 루스의 영토가 아니었던 초원 동쪽 지역의 지명들도 동방에서 이주해 온 이들 민족에 의해 차용된 경우가 있다.

1) 통치 체제에 관한 차용어

① **баскак** : 킵차크 칸국에서 루스 공국으로 파견했던 징세, 행정 담당 관직의 명칭이다. 감찰관을 의미하던 투르크어 ‘basqaq’에서 유래되었다⁴⁰⁾. ‘basqaq’은 ‘даруга’의 어원인

33) Соловьев В.М., *слово о России*, М.: Рус.яз.Курсы., 2003. 192 с., 43~44쪽.

34) 찰스 헬퍼린, 『킵차크 칸국: 중세 러시아를 강타한 몽골의 충격』, 권용철 옮김, 글항아리, 2020, 94쪽

35) 위의 책, 96~97쪽

36) 몽골어로 ‘1만’을 뜻한다.

37) Rogozh chronicle, Khronograf 등.

38) 트마(тьма)의 복수형.

39) 위의 책, 98~101쪽

40) 데이비드 O.모건의 책, 197쪽.

몽골어 'daruga'와 거의 동일한 말이다. 투르크어의 'bas-'와 몽골어의 'daru-'는 '압박하다', 또는 '직인을 찍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바스카와 다루가의 원래 의미는 '직인을 찍는 사람'이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⁴¹⁾. 바스카이 휘하에 거느린 군대의 숙소는 이후 번성한 민간 거주지가 되었다. 러시아의 도시나 촌락 중 바스카(баскак), 바스카코보(баскаково)⁴²⁾ 등의 지명에는 그 흔적이 남아 있다⁴³⁾.

② **даруга** : 바스카처럼 루스 공국의 행정을 관리했던 관직 명칭이다. 전술했듯 파견되지 않고 칸국에 거주했으며, 특히 세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⁴⁴⁾. 어원은 몽골어 'daruga'이며, 의미는 바스카와 동일하다. 흥미로운 지점은 14~15세기 모스크바 공국에서 경제를 담당하는 별도의 관리 구역으로 설치되었던 'пути'와의 연관성이다. пути는 원래 '길, 여행'을 뜻하는 러시아어이나, 이 구역은 기능과 명칭이 모두 다루가에서 차용된 것으로 보인다. 몽골어 'daruga'는 마지막 모음인 'a' 발음에 강세가 있는데, 러시아어에서는 강세가 있는 모음 앞의 모음들이 약화되기 때문에 앞의 두 모음이 'o'에 가까워지며 'daroga', 'doroga', 'doraga' 등으로 발음되었다. 이는 러시아어로 '길'을 뜻하는 단어 'дорога'와 유사해졌고, 결국 그 유의어인 пути로 다시 번역되어 차용된 것으로 보인다. 18~19세기 러시아 사학자인 Karamzin이 'пошлина дорожная'(다루가의 세금)라는 구절을 'путевая пошлина'(뿌띠의 세금)라고 해석한 것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⁴⁵⁾.

③ **ярлык** : 칸이 공국의 공후들에게 내린 통치 허가장, 러시아 정교회의 대주교에게 부여한 특허장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다. 황제의 명령이나 칙령을 가리키는 몽골어 자를릭(jarlig)에서 차용된 것으로 보이며, 그 기원은 명령, 지시를 뜻하는 투르크어 'ЯРЛҢК'이다⁴⁶⁾. 현대 러시아어에서는 '상표'를 의미한다.

④ **тьма** : 몽골 유목 사회의 만호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몽골어 투멘(tumen)이 차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단어이다. 고대 동슬라브어에 기원이 있는 단어로 보기도 한다. 현대 러시아어에서는 '1만', 나아가 '다량'의 의미를 지닌다. 14세기 러시아어에서 1만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으며, 당시 1만의 병력을 거느린 지휘자를 칭하던 템닉(Темник) 또한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예문 1) 1371년에 드미트리 돈스코이는 킵차크 칸국에 인질로 잡혀 있던 트베르의 이반 미하일로비치의 몸값으로 '1만 루블(Тьмы рублев)'을 지불했다.⁴⁷⁾

예문 2) 1315년에 토르조크를 공격하던 모스크바 공국-타타르 연합군은 다섯 번에 걸쳐 '1만 은 그리브니(Тем гривен серебра)'를 받고 매수되었다.⁴⁸⁾

41) István Vásáry, *Turks, Tatars and Russians in the 13th-16th centuries*, Aldershot, England : Burlington, 2007, 188쪽.

42) [그림 1] 참고.

43) 게오르기 베르나츠키의 책, 317쪽.

44) István Vásáry의 책, 188쪽.

45) 위의 책, 195~196쪽.

46) 「야를릭」, 『투르크 인문백과사전』, <https://naver.me/FpMMzrf5> (접속일 : 2022.11.27.)

47) Troitskaia letopis', p.393 (찰스 할퍼린의 책, 295쪽에서 재인용.)

48) P.S.R.L. IV, p.48 (위의 책, 295쪽에서 재인용.)

⑤ **казна** : ‘재정’을 뜻하는 몽골어 ‘kazna’를 차용한 어휘이다. 16세기 모스크바 공국은 킵차크 칸국의 세금 징수나 재정 운영에 관한 많은 제도를 도입했고, 그 과정에서 용어도 다수 차용했다⁴⁹⁾. ⑤~⑧은 모두 이러한 맥락에서 차용된 어휘들이다. 현대 러시아어 ‘казна’는 ‘국유재산, 자원, 공금(公金)’ 등을 의미하며, казначей(회계 담당자), казначейский(출납계원의), казначейство(국고, 재무부) 등은 모두 이로부터 파생된 단어들이다. казначей는 모스크바 공국 시기 ‘재정 담당자’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⑥ **таможня** : 킵차크 칸국에서 공국에 대해 걷던 세금 중 ‘탐가(tamga)’는 자본에 대한 수수료이자, 나아가 물품 거래 시 징수하는 관세였다. 이 단어는 몽골어와 투르크어에서 씨족의 ‘휘장’을 의미했고, 그 씨족의 소유물을 표기하기 위한 ‘상표’의 의미로도 쓰였다⁵⁰⁾. 칸국에서 탐가는 관세, 관세를 징수하는 관료, 관세를 지불했음을 표시하는 인장 또는 문서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모스크바 공국은 칸국의 관세 제도를 도입하며 같은 의미로 ‘тамга’라는 용어를 차용했다⁵¹⁾. 현대 러시아어에서 ‘세관’을 의미하는 단어 таможня는 тамга에서 유래되었다. таможенник(세관원), таможенный(세관의) 등은 이로부터 파생된 단어들이다.

⑦ **мыт** : 킵차크 칸국에서 물품에 대한 지방세로 징수하였던 세금의 종류 ‘myt’⁵²⁾에서 차용된 어휘로, 모스크바 공국에서는 ‘물품에 대한 통관세’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7세기 중반 이후 폐지되었다⁵³⁾.

⑧ **таркан** : 킵차크 칸국에서는 13세기 인구조사 시 루스의 귀족과 농민을 구분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했으나, 몽골 귀족들에게는 세금의 면제권을 부여하고 타르칸(tarkhan)이라 칭했다. 모스크바 공국에서는 15세기 말 인구 조사를 시행할 때 귀족과 농민을 구별하며, 칸국의 용어 ‘타르칸’을 그대로 차용해 ‘면제받는 귀족’을 지칭했다. 용례로, тарканые грамоты는 ‘면제의 허가’라는 의미이다⁵⁴⁾.

⑨ **ям** : 몽골 제국의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인 역참제의 영향으로 차용된 어휘이다. 역참을 의미하는 몽골어 jam, 투르크어 yam이 차용된 어휘로, 현대 러시아어에서는 ‘우편물, 역’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 외에도 базар(시장), балаган(가점), бакалея(식료잡화), барыш(이윤), кумач(붉은 천, 옷), брак(쓰레기)⁵⁵⁾ 등의 차용 어휘들⁵⁶⁾은 킵차크 칸국에서 투르크인들이 상업 및 무역에 다

49) 찰스 햄퍼린의 책, 198쪽.

50) 게오르기 베르나츠키의 책, 320~321쪽.

51) 찰스 햄퍼린의 책, 198쪽.

52) 게오르기 베르나츠키의 책, 321쪽.

53) 「мыт」, 『위키낱말사전(Викисловарь)』, (접속일 : 2022.11.27.)

54) 찰스 햄퍼린의 책, 310쪽

55) ‘없다, 버리다’를 뜻하는 투르크어 brakmak, berakmak에서 차용되었다. (F.Miklosich, *Die turkische Elemente in den sudost und osteuropaischen Spra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Vienna, Denkschriften(Phil.-hist.Klasse), 1884-90, 17쪽)

56) 게오르기 베르나츠키의 책, 551쪽과 F.Miklosich의 글.

수 종사했던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2) 문화적 맥락에서의 차용어

① **деньга** : 14세기 후반 수즈달, 랴잔 등의 공국에서 주조한 은화의 명칭으로 처음 등장했으나, 바로 현대의 ‘돈’처럼 집합명사로서의 화폐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다⁵⁷⁾. 덴가의 기원은 다양한 가치의 은화를 가리키던 투르크어 *tänkä, tängə, tengä, tenge* 등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들은 다시 고대 페르시아어 *dāng*을 어원으로 한다⁵⁸⁾. 현대 카자흐스탄의 통화 단위인 텡게(тенге)나 투르크메니스탄의 주화명 텡게(tenge) 등도 같은 투르크어 어근을 공유하고 있다.⁵⁹⁾ 현대 러시아어에서 **деньга**는 반(1/2) 코페이카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거의 쓰지 않으며, 복수형인 **деньги**를 ‘돈’의 의미로 자주 사용한다.

② **алтын**⁶⁰⁾ : 14세기 후반 화폐 단위를 가리키는 말로 처음 등장했으며, 18세기에는 화폐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А почнуть твои искати передъ насъ, или наши передъ тебе, или предъ наши Намѣстници или передъ Волостели: хоженного въ городѣ **алтынъ**, а на правду два⁶¹⁾.

귀하 측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송을 시작하거나 우리 사람들이 귀하에게 소송을 시작할 때, 혹은 우리 지사나 읍장에게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 도시 통행료는 1 알틴이고 재판비용은 2 알틴으로 한다.

투르크어에서 차용되었다고 보나, 그 어원에 관해서는 크게 ‘금’을 의미하는 투르크어 *altun, altyn*에서 비롯되었다는 설과, ‘6’을 의미하는 투르크어 *alty*에서 비롯되었다는 설, 그리고 ‘다람쥐 6마리’를 의미하는 ‘*alty tin*’라는 구의 줄임말이라는 세 가지 설이 있다. 두 번째 설은 알틴이 처음 등장했을 당시 그 가치가 (모스크바) 덴가의 6배였다는 러시아 학자 В.Татищев의 관찰을 토대로 한다.

понеже алты слово татарское, значит шесть, ибо в ней 6 денег⁶²⁾.

알틴은 타타르 단어로서 6을 뜻하며 그것(알틴)이 6 덴가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57) Спасский(1962). (길윤미, 「러시아어에 반영된 투르크어와 투르크문화: 러시아 화폐용어를 중심으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70권, 한국러시아학회, 2020, 57쪽에서 재인용.)

58) Фасмер(Т.1) 499. (위의 글, 57쪽에서 재인용.)

59) 길윤미, 「러시아어에 반영된 투르크어와 투르크문화: 러시아 화폐용어를 중심으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70권, 한국러시아학회, 2020.

60) 알틴에 관한 내용은 위의 글(길윤미)을 인용, 요약하였다.

61) СГГИД 48. (위의 글, 60쪽에서 재인용.) 돈스코이 대공과 트베리의 미하일(Михаил Александрович) 대공이 맺은 협정문서(1375년).

62) Татищев, В.Н. Лексикон российский исторический, географический, политический и гражданский. Ч.1. (СПб.: Тип. Горнаго училища, 1793) 36. (길윤미의 글, 61쪽에서 재인용.)

세 번째 설에 관해, В.Трутовский는 알틴의 출현과 모피, 가죽의 유통을 관련지어 설명했다. 틴(tin, tein, deyin)은 현대 투르크어들에서도 널리 나타나는 단어로 ‘다람쥐, 담비’와 ‘돈, 화폐’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 일대에서 다람쥐가죽과 담비가죽이 화폐처럼 거래되던 것에서 비롯한다.⁶³⁾ 그 영향으로 ‘다람쥐’를 의미하던 틴이 ‘화폐’의 의미를 지녀, 두 번째 설과 비슷한 맥락에서 ‘alty tin’의 줄임말이 화폐 단위로 사용되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알틴은 18세기 이후 정치적 이유로 점차 사용이 금지되어 현대 러시아어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나, 19세기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속담 등을 통해 과거 러시아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던 단어였음을 알 수 있다.

Ну вот мама, нашла я себе жениха, **не было ни гроша, да вдруг алтын**
н.

- А.Островский, <Бедная невеста>, 1852
엄마, 제가 결혼할 사람을 찾았어요. 땡전 한 푼도 없다가 갑자기 알틴이 생긴 거죠.

Здравствуй дорогой Александр Николаевич! Я закончил "Степь" и я её отправляю. **Не было ни гроша, да вдруг алтын**⁶⁴⁾. Думал я написать пару листов, а в итоге получилось все пять.

- А.Чехов, <Письмо к А. Н. Плещееву 3 февраля 1888 года>

잘 있었나,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초원>을 탈고하여 보내네. 땡전 한 푼도 없다가 갑자기 알틴이 생겼지 뭐냐. 두어 장만 쓸 생각이었는데 다섯 장이나 썼으니 말이지네.

③~⑧은 러시아 원어민인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Ольга Храброва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Монгольские слова, оставшиеся в русском языке」⁶⁵⁾에 언급된 몽골어, 또는 몽골어와 투르크어로부터의 차용어 중 러시아 현지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들을 선별한 것이다.

③ 동물 명칭 - барс, беркут⁶⁶⁾, марал :

순서대로 살쾨기, 눈표범; 검둥수리; 누렁이, 뿔이 많은 큰 사슴을 의미하는 단어들이다. 중앙아시아 초원 지대에서 시베리아 일대에 이르는 지역에 분포하는 동물들이기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몽골계, 투르크계 유목 집단으로부터 유입된 어휘들로 추정된다.

④ 말 관련 용어(1) - мерин, хомут : 순서대로 거세마와 멩에를 의미한다. 몽골족의 일상에서 말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몽골족은 아주 어릴 때부터 말을 타고 생활하며 늘 함께하기 때문에, 몽골어의 말에 관련된 어휘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발달

63) 길윤미의 글(2020), 61~62쪽.

64) 별 볼일 없는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행운이나 기쁜 일이 생긴 경우를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되던 속담이다.(길윤미의 글, 65쪽.)

65) 「Монгольские слова, оставшиеся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Asia Russia Daily>, <https://asiarussia.ru/blogs/22815/> (접속일 : 2022.11.27.)

66) 북투르크어 birkut에서 차용되었다. (F.Miklosich의 글, 15쪽)

해 있다. 이들 두 단어는 그 중 기마 전투와 관련해 사용되는 어휘이기에, 모스크바 기병이 몽골 기병을 모방하는 과정에서⁶⁷⁾ 차용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⑤ **буран** : 몽골어의 borugan, 투르크어의 buran으로부터 차용되었으며, 현대 러시아어에서는 ‘눈보라’를 의미하는 어휘이다. 몽골어와 투르크어에서는 눈보라뿐 아니라 초원 지대에 부는 모래바람이나 큰 돌풍, 회오리 등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러시아어로 차용되며 ‘눈보라’로 의미가 한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⑥ **지명 - Сибирь(시베리아), Ангара(안가라), Иркутск(이르쿠츠크)** : 아시아 대륙 동부의 지명이다. 시베리아와 이르쿠츠크는 지명이고, 안가라는 시베리아 동부의 강 이름이다. 초원 동부 지역이기에 동쪽으로부터 이동해 온 몽골과 투르크의 언어로부터 차용되었으나, 러시아 영토로 편입되며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⑦ **тайга** : 북반구 고위도의 침엽수 삼림지대를 뜻하는 말이다. 원래 시베리아의 삼림지대를 일컫는 말이며, ⑥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동부가 러시아 영토로 편입되며 차용한 명칭으로 보인다.

⑧ **богатырь** : 러시아어에서 ‘영웅, 용감한 전사’ 등을 의미한다. 몽골어 bagatur, 투르크어 bayatur로부터 차용되었다. ‘용감한, 훌륭한, 부자의’라는 의미로 나아가, 현대 러시아어에서 ‘부자의, 부유한, 훌륭한’을 의미하는 богатый가 파생되었다⁶⁸⁾.

⑨ **말 관련 용어(2) - аргамак, буланка, табун⁶⁹⁾** :

순서대로 승용마; 짙은 갈색의 말; 떼, 무리를 의미한다. 전술했듯 다양하게 분화된 몽골어의 말 관련 어휘들로부터 차용되었다. 타본은 몽골어에서 특히 말 떼, 또는 사슴 떼를 의미하는 단어로 유목 문화의 특성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목동이라는 의미의 табунщик도 파생되었다. буланка에서는 ‘암갈색의, 짙은 갈색의’라는 의미의 буланый가 파생되었다.

이 외에도 армяк(겉옷, 낙타의 털로 만든 옷), башлык⁷⁰⁾(방한 두건), башмак(신발, 장화), бурка(펠트로 만든 외투)⁷¹⁾ 등 의복 관련 단어들⁷²⁾은 유목 문화의 영향을 받은 몽골어와 투르크어로부터 차용된 단어들이다.

5. 결론

원대에 한아언어는 몽골인과 한인뿐 아니라 여진인, 거란인 등 여러 북방민족이 공통적으로

67) 찰스 햐퍼린의 책, 199쪽 참고. “16세기의 전형적인 모스크바 기병에 대한 묘사는 몽골 등자와 안장 위에서 몽골식 투구를 쓰고 있고, 몽골식 화살통에 몽골의 복합식 활로 무장했음을 보여준다.”

68) 「богатырь」, 『위키낱말사전(Викисловарь)』, (접속일 : 2022.11.27.)

69) 게오르기 베르나츠키의 책, 551쪽.

70) 머리를 의미하는 투르크어 ‘bash’에서 유래되었다. (F.Miklosich의 글, 11쪽)

71) 낙타의 털로 만든 천을 의미하는 페르시아어 ‘bérék’에서 차용되었다. (F.Miklosich의 글, 14쪽)

72) 위의 책, 551쪽과 F.Miklosich의 글.

사용했으며,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한인들과 교류하기 위해 그 외의 민족들도 따로 익혀 사용한 통용어였다⁷³⁾. 또한 원 대 공문서에는 한아언어와 비슷한 형태로 몽골어를 한어로 직역한 직역체 한어(直譯體 漢語)가 쓰였다⁷⁴⁾. 구어와 문어의 영역에서 몽골어의 영향을 받은 한어는 명 초기까지 사용되었고, 따라서 원 대와 명 초기의 사료, 더 나아가 당시 중국과 교류했던 국가들의 사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한어가 아닌 이 직역체를 이해해야 한다. 서론에서 살폈듯 당장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만도 원 대 직역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⁷⁵⁾. 이와 같이 당시의 언어에 대한 이해는 사료를 해석해 내는 것에서 나아가 당시의 사회와 문화를 맥락 속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한아언어가 몽골 지배기와 그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의 중국 및 주변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듯, 몽골 지배의 영향으로 러시아어에 유입되었던 타타르어(몽골어, 튀르크어)도 ‘타타르의 멩에’ 시기 러시아의 사회상을 파악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국내에 ‘타타르의 멩에’ 시기에 관한 연구, 특히 당대의 차용 어휘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은 아쉽게 느껴진다. 본고의 연구는 넓은 범위의 차용 어휘를 찾아보고 정리하는 선에서 그쳤지만, 국내에 이렇게 타타르어 차용 어휘를 정리한 연구 결과물이 없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유의미한 공부가 될 수 있었다. 본론에서 살폈듯 언어는 당시의 제도나 사회, 문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어원을 조사하고 언어 차용의 양상을 살피며 문헌 자료보다 생생하게 당대 제도나 문화의 전파 양상을 알아볼 수 있다. 이러한 지점에서 차용어 연구는 역사나 사회 등 타 분야 연구의 의미있는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타타르의 멩에’ 시기 사회상과 당대의 차용어를 관련지어 연구한 본고가, 이를 시도한 유의미한 한 걸음이 되었기를 바란다.

73) 张彧彧, 「元代“汉儿言语”的交际价值和文化价值」, 『江西社会科学』 제8호, 江西省社会科学院, 2015, 130쪽.

74) 박영록의 글(「元代 直譯體公文의 構造 및 常套語 一考」, 『대동문화연구』 제86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참고.

75) 중국과의 외교 문서가 실린 조선왕조실록의 오역을 바로잡기 위해 규모 있는 원·명 백화(白話) 사전의 편찬이 요구된다는 주장도 있다. (문미진, 「『太宗實錄』국역본에 나타난 白話 資料의 번역 오류」, 『중국연구』 제49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10, 95쪽.)

[그림 1] 러시아의 ‘баскаково’ 지명⁷⁶⁾

Баскаково

Материал из Википедии — свободной энциклопедии

Баскаково — название населённых пунктов в России:

- **Баскаково** — деревня в Череповецком районе Вологодской области.
- **Баскаково** — деревня в [Фурмановском районе](#) Ивановской области.
- **Баскаково** — деревня в [Нейском районе](#) Костромской области.
- **Баскаково** — деревня в составе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город Березники](#) Пермского края.
- **Баскаково** — село в Гагаринском районе Смоленской области.
- **Баскаково** — деревня в Угранском районе Смоленской области.
- **Баскаково** — деревня в Воловском районе Тульской области.
- **Баскаково** — деревня в [Даниловском районе](#) Ярослав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евское сельское поселение, Семловский сельский округ).
- **Баскаково** — деревня в [Даниловском районе](#) Ярослав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евское сельское поселение, Середской сельский округ).
- **Баскаково** — деревня в Тутаевском районе Ярославской области.

76) 「Баскаково」, 『위키백과(Википедия)』, (접속일 : 2022.11.27.)

- 참고문헌

<논문>

- 길윤미, 「러시아 역사 속 투르크 민족명에 관한 소고: ‘폴로베츠’와 ‘타타르’를 중심으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66권, 한국러시아학회, 2019.
- 길윤미, 「러시아어에 반영된 투르크어와 투르크문화: 러시아 화폐용어를 중심으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70권, 한국러시아학회, 2020.
- 문미진, 「『太宗實錄』국역본에 나타난 白話 資料의 번역 오류」, 『중국연구』 제49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2010.
- 박영록, 「元代 直譯體公文의 構造 및 常套語 一考」, 『대동문화연구』 제86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 張彥彥, 「元代“汉儿言语”的交际价值和文化价值」, 『江西社会科学』 제8호, 江西省社会科学院, 2015.

<단행본>

- 박한제 외 3인, 『유라시아 천년을 가다: 역사학자 4인의 문명 비교 탐사기』, 사계절, 2002.
- 이무열, 『한 권으로 보는 러시아사 100장면』, 도서출판 가람기획, 1994.
- 이주엽, 『몽골제국의 후예들: 티무르제국부터 러시아까지, 몽골제국 이후의 중앙유라시아사』, 책과함께, 2020.
- 게오르기 베르나츠키, 『몽골제국과 러시아』, 김세웅 옮김, 도서출판 선인, 2016.
- 데이비드 O.모건, 『몽골족의 역사: 몽골초원에서 중국, 중동, 러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권용철 옮김, 모노그래프, 2012.
- 찰스 헬퍼린, 『킵차크 칸국: 중세 러시아를 강타한 몽골의 충격』, 권용철 옮김, 글항아리, 2020.
- F.Miklosich, *Die turkische Elemente in den sudost und osteuropaischen Spra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Vienna, Denkschriften(Phil.-hist.Klasse), 1884-90.
- István Vásáry, *Turks, Tatars and Russians in the 13th-16th centuries*, Aldershot, England : Burlington, 2007.
- Соловьев В.М., *слово о России*, М.: Рус.яз.Курсы., 2003. 192 с.

<웹사이트>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 「漢兒言語」, 『위키백과(維基百科)』, <https://zh.wikipedia.org/wiki/%E6%BC%A2%E5%85%92%E8%A8%80%E8%AA%9E> (접속일 : 2022.11.27.)
- 「Русь」, 『위키백과(Википедия)』, <https://ru.wikipedia.org/wiki/%D0%A0%D1%83%D1%81%D1%8C> (접속일 : 2022.11.27.)
- 「Монголо-татарское иго」, 『위키백과(Википедия)』, <https://ru.wikipedia.org/wiki/%D0%A0%D1%83%D1%81%D1%8C> (접속일 : 2022.11.27.)
- 「야를릭」, 『투르크 인문백과사전』, <https://naver.me/FpMMzrf5> (접속일 : 2022.11.27.)

- 「Баскаково」, 『위키백과(Википедия)』,

<https://ru.wikipedia.org/wiki/%D0%91%D0%B0%D1%81%D0%BA%D0%B0%D0%BA%D0%BE%D0%B2%D0%BE>

(접속일 : 2022.11.27.)

- 「мыт」, 『위키낱말사전(Викисловарь)』,

<https://ru.wiktionary.org/wiki/%D0%BC%D1%8B%D1%82>

(접속일 : 2022.11.27.)

- 「богатырь」, 『위키낱말사전(Викисловарь)』,

<https://ru.wiktionary.org/wiki/%D0%B1%D0%BE%D0%B3%D0%B0%D1%82%D1%8B%D1%80%D1%8C>

(접속일 : 2022.11.27.)

- 「Монгольские слова, оставшиеся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Asia Russia Daily>,

<https://asiarussia.ru/blogs/22815/> (접속일 : 2022.11.27.)